

01

수능국어의 두 가지 전략

1. 수능에서 필요한 기초 태도

수능 국어의 기초 태도

제대로 읽으면 다 맞는다.

수능 문학에서 필요한 태도

정확하고 빠르게 푼다.

- ✓ 정답률 ↑ 풀이시간 ↓
- ✓ 사후적 해석 실전적 풀이
- ✓ S2 S1

2. 생각, 그리고 사후적 해석과 실전적 풀이

왜 문제를 틀리는 걸까?

시대가 흘러가면서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절대 공부량은 줄었다. 국어, 수학, 과학은 정말로 많이 줄었다. 따라서 수능시험문제는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실수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인강과 같은 학습도구 역시 발전하면서 수능 등급 컷은 90점을 넘어버렸다. 그리고 높아진 등급 컷은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물론 최 왜냐하면 3문제를 틀리더라도 1등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정도 이상의 학습량이 만족되면 현재의 수능에서는 실수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 분석해야 한다. 그 분석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생각을 안할 때		생각을 깊게 할 때	
○	×	○	×

별 생각 없이 틀릴 경우도 있고, 생각을 깊게 했는데도 틀리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경우에 대해서 일반적인 학생들은 그냥 실수라 치부해버리거나 답지를 한번 보고 넘어가곤 한다. 물론 정말로 많이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깊게 하다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오답노트를 만든다. 그리고 생각 없이 틀린 경우를 고치려고 시중에 문제집들을 계속 반복해서 풀었던 것 같다. 하지만 실수를 하든 안하든 정말로 아쉬운 사실은 틀린 곳을 반복해서 틀린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고치고 싶었고, 그 결과 이 책을 적게 되었다.

그리고 결과부터 말하면, 우리는 ‘생각’에 관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의 두 가지 방식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각은 두 가지로 나뉜다.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는 생각과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생각으로 말이다. 내가 생각해왔던 생각의 두 가지 방식은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서 잘 분석되어 있다. 이 두 생각을 이 책에서는 S1과 S2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한다.

	S1	S2
속도	>	
특징①	Non stop	자제력
특징②	Easy	S1 수정
결론	생각 필요 X	노력 필요

S1 (시스템 1) : 거의 혹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 자발적인 통제에 대한 감각없이 자동적으로 빠르게 작동한다.

S2 (시스템 2) : 복잡한 계산을 포함해서 관심이 요구되는 노력이 필요한 정신 활동에 관심을 할당한다. 활동 주체, 선택, 집중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과 연관되어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때때로 작용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여 공부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경험은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에 굳이 이름을 붙여야 하는가? 붙여야 한다. 이름이 없어도 우리는 그 대상의 존재성을 인식할 수 있지만, 이름을 붙이고 그 대상에 구체성을 더했을 때 우리는 학문적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분석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이 도구를 정확히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HOW?

이 방법은 수능을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먼저 수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수능은 대학수학능력평가의 줄임말이다. 수학은 혼자 공부함을 말하며, 능력평가는 말 그대로 능력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평가 대상이 되는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대상은 S1이다. 수능은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답을 찾도록 구성되어 있다. 국어는 한 문제당 1.7분(80/45), 수학은 한 문제당 3.3분(100/30), 영어는 한 문제당 1.5분(70/45), 사과탐은 한 문제당 1.5분(30/20)을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짧은 순간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런 능력검사는 기존의 IQ검사와 크게 차이가 없다. 당연히 시간을 적게 사용하는 S1이 수능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

S1은 긴장감이 적을 때 활성화 되고,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보 인출 시 실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난다. 또한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외국에서는 창의적 사고를 Critical Thinking이라 한다)
 하지만 신유형 문제를 보거나, 익숙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람을 긴장하게 된다. 보통 수학 21, 30번 문제를 보거나, 영어 빈칸 킬러 문형을 볼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S2가 활성화된다. S2는 기억보다는 사실에 더 의존한다. 하지만 불편한 심리상태는 정보 인출 시 실수를 유발하며,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못하게 막는다.

	편안함	불편함
생각	S1	S2
긴장감	〈	
근본	기억	사실
접근	실전적 풀이	사후적 해석
Critical	〉	
결론	균형 있는 활용	

그럼 S2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당연히 평소 공부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S2를 사용하고, 이 S2는 아주 가끔씩 S1을 수정하곤 한다. 그리고 S2는 집중력을 사용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S2도 필요하다.

따라서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답은 아래와 같다.

:S1과 S2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잘 프로그래밍 된 S1을 만들고, 논리적 도구를 통하여 S2 사용 시 오류가 없도록 하자.

1. ‘자동화된 사고’인,

Fast Thinking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

: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그 동안 연습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발견된 요소와 선지의 내용이 대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구겨진 하늘은 묵은 애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문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종이 쳐.

띄엄 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때나무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레짠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잎 져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늑이 북극을 꿈꾸는데
늑은이는 늑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 이육사, 「초가」 -

(나)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려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

22. **묵화**와 **북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묵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가)에서 ‘묵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북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 ③ (가)에서 ‘묵화’에 ‘종이 쳐’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 ④ (가)에서 ‘묵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 ⑤ (가)에서는 ‘묵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북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낸다.

2. '분석적 사고'인,

Slow Thinking으로 문제를 정리한다는 것

: 사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실전에 대한 연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전적으로 풀 때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 때 했던 과정들을 눈에 보이도록, 실제 문제에 대해서 정리할 때 앞에서 보였던 체크리스트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Slow Thinking 위한 공부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1. 생각의 과정을 천천히 적어보기

: Fast Thinking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던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보자. 자신이 적는 체크리스트를 읽어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의 과정을 정리하자.

2. 생각의 과정에서 적용된 논리 관계를 찾고 정리하기

: 선후관계, 인과관계, 포함관계, 수단과 목적 등. 생각의 과정을 정리한 필기에서 정리된 논리관계를 찾아보고, 더 나아가서 논리관계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3. 배경지식 확인하기

: 우선적으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이후 모르는 단어나 개념에 대해서 사전 검색해보자.

Slow Thinking으로 문제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은 실전에서 쓸 머릿속의 체크리스트를 정돈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부방식을 통해 오류를 제거할수록, 여러분의 체크리스트는 수능 국어에 대해 보다 더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다.

22. **목화**와 **복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목화와 복창이 있는 주변부를 본다.
- ✓ '비교'라는 말에 집중한다.

① (가)에서는 '목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복창'에서 바라본 산의 '폼'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 '박쥐 나래' 주변부를 본다.
- ✓ '황혼이 문혀 오면'에서 시간적으로 저녁임을 알 수 있다.
(추가적 단서)
- 호롱불: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함
- ✓ 해당 선지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 ✓ '폼'에 주변부를 본다.
 - ✓ (산의) '그 폼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문히리니'라는 표현에서, '아이가 부모님의 폼에서 성장함'을 연결 지을 수 있다.
 - ✓ 해당 선지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

② (가)에서 '목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복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 ✓ '황혼' 주변부를 본다.
- ✓ '황혼이 문혀 오면'에서 시간적으로 저녁임을 알 수 있다.
- ✓ 어두워지는 현실적 상황을 알 수 있다.
- ✓ 해당 선지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 ✓ '저승의 밤' 주변부를 본다.
- ✓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이 산을 통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연결되어 있음'은 '절망'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거짓이다

③ (가)에서 ‘목화’에 ‘좁이 쳐’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 ✓ ‘좁이 쳐’는 좁별레가 있다는 뜻이다. 즉, 목화를 좁별레가 झा아먹었다는 것이다.
- ✓ 목화가 흰 그림이라는 뜻이며, 오래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 해당 선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 ✓ ‘오늘’ 주변부를 본다.
- ✓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았다는 것을 통해, 산을 지향하는 태도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 ✓ 인간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지, 산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즉, 산이라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변화가 없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거짓이다.

④ (가)에서 ‘목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 ✓ ‘그림 조각’ 주변부를 본다.
- ✓ 시의 화자인 ‘나’는 회상 중이다.
- ✓ 고향이 분절된 것이 아니라, 내의 고향에 대한 회상이 분절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거짓이다.

- ✓ ‘열어’ 주변부를 본다.
- ✓ 시의 화자인 ‘나’는 북창을 열어서 산을 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창을 열어서 산과 연결되는 것이다.
- ✓ 연결되는 것과 분리된 것은 다르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거짓이다.

⑤ (가)에서는 ‘목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북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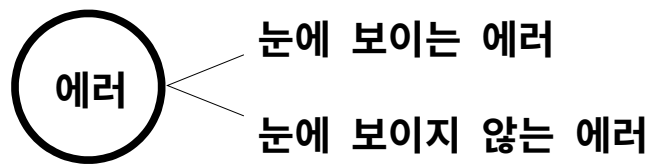
- ✓ ‘모매꽃’ 주변부를 본다.
- ✓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레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에서 부끄럽기 때문에 두 뺨위에 모매 꽃이 피었다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 해당 선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 ✓ ‘보옥’ 주변부를 본다.
- ✓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에서 보옥이 있더라도 자랑하지 않는 겸허함을 산에 부여한 것을 알 수 있다.
- ✓ 특정 대상에 대한 판단으로, ‘겸허함’과 ‘안타까움은 다르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거짓이다.

지금까지 정리된 체크표시의 내용들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수능 국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3. 보이지 않는 에러와 성적상승전략

가장 단순한 성적상승 전략은 ‘오답을 줄이는 것’입니다. 오답의 원인을 사고과정 중에 발생하는 에러라고 한다면, ‘에러를 없애는 것’이 수험생활 1년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에러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를 들면, 문제를 풀다가 선지에 특정 단어를 잘못 읽어서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 앞으로 선지를 천천히 읽거나 정확하게 읽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인식할 수 있는 에러에 대해 여러분은 대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끔씩 왜 틀렸는지 모르는 문제들이 있다. 물론 ‘대충 이래서 틀린 것일 거야’ 라는 넘겨짚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해당 문제를 풀면서 발생한 정확히 에러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 특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에러에 대해 여러분들은 충분한 대처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1년 동안 맞서 싸워야 할 적들 중에 강적이라고 부를 녀석은 ‘안 보이는 에러’다. 하지만 해당 에러는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사고과정 중에 정확히 어디에서 발생한 건지 스스로 인식하기도 힘들고, 왜 틀렸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대처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앞으로 1년 동안의 국어의 핵심전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러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이후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정리하고 집중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뇌는 보이지 않는 것 혹은 부정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감이 올 것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코끼리가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특성에 대한,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

스키 선수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장애물에 박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 가서 박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키선수는 나무를 피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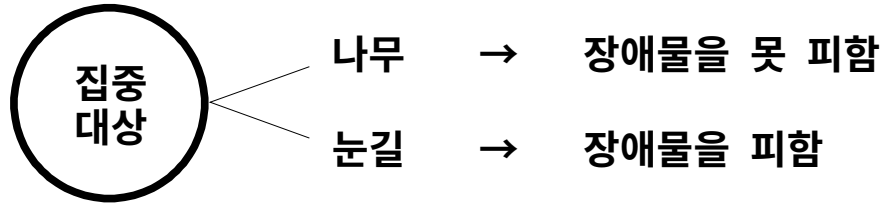
그저 나무를 피해, 나무를 피해라고만 생각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은 나무 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무 밖에 안 보여서 이 많은 나무를 어떻게 다 피하나... 라는 걱정이 머릿속에 가득 차겠죠.

대신 눈길을 따라가, 눈길을 따라가라고만 생각한다면, 길만 보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무에 박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나무에 박게 되고 길은 안보일 것입니다. 단지 수백만 그루의 나무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길에 집중하면 나무가 안보이고, 나무 사이가 사실은 넓고 눈 쌓인 길이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러에 대해 대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에러를 없애야 한다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러에만 집중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말 그대로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화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에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처도 못하고 그저 에러의 늪에 빠져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처법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정리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에 제시된 표는 이번 수업 과정에서 다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핵심원리	눈에 안보이는 것을 보이게 해야 한다 = 사고과정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분류	문학		독서		
	문제에 적용		지문에 적용		문제에 적용
중분류	문학개념어와 문학개념어가 아닌 것들	<보기>를 활용하는 것	기존에 읽었던 것에서	읽어가는 과정에서	추론에 관하여
소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개념어 ✓ 문학개념어가 아닌 것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기>에서 정보를 ✓ <보기>에서 의도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확인 ✓ 논리관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량 체크 ✓ 논리관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치와 이해 ✓ 쌍개념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태도 중에 하나는

글을 읽으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수능 시험장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나' 밖에 없으며, 지문이 선사하는 정보의 바다에 휘둘리지 않고,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 활용 방식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선지 분석으로 연결짓는다면, 수능 국어에서 어떤 문제의 정답으로 이르는 과정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납득할 수 없다면 분명 의의신청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는 정답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라는 뜻이며, 이는 문제를 푸는 과정을 분명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